

경인환경청, 주요 湖沼 환경실태조사

경인지방환경청은 지난 3월 14일 주요 호수와 늪의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3월말부터 올 연말까지 아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환경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화성 남양호, 평택 평택호, 수원 원천저수지, 서호, 광교저수지 등 5곳.

환경부, 과장급 인사

△서기관 정희석 폐기물자원국 화학물질과장에 보함

△폐기물자원국 화학물질과장 환경서기관 이상팔 국립환경연구원 총무과장에 보함(3.12)

환경부, 합동토론회 개최

환경부는 지난 3월 14일부터 이틀간 인천시 서구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장. 차관을 포함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하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합동토론회는 친환경적 국토관리 방안·환경기준 개선방안·환경부담금 개선 방안·주요 국책사업 대책·환경행정 역량 제고 등 6개 분야의 분임토론과 합동토론으로 나누어 열렸다.

또 참여정부의 환경분야 주요 과제로 제시된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의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실천방안도 논의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계부처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환경정책 현안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아래 위 직원들이 함께 토론회하면서 문제해결을 찾는 토론문화 활성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유독물관리자 교육 실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2003년 제1기(부산,제주 관할)와 제2기(경남,울산 관할) 유독물관리자 과정교육을 3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환경운동연합·수도권 규제완화 성급한 주장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12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권의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재정경제부의 입장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 최대과제를 그르칠 수 있는 성급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

주장은 지역육성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수도권 팽창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재경부와 건교부는 성급한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을 철회하고 우선적으로 지방육성정책과 제도정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 규제정책은 지방육성정책이 충분히 수립·반영되고 지방의 특성화된 발전이 어느 정도 이뤄진 후 수도권 계획관리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통합조정위원회 신설 추진

정부는 지난 3월 10일 지역개발이나 환경문제 등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대형사업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상시적 조정기구인 국가통합조정위원회 설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 브리핑"은 이날 자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참여정부 국정토론회에서 내린 지시를 토대로 청와대 정책실이 국가통합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실행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16개 시도가 환경 등 5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전문가들을 5명씩 추천, 모두 80명으로 국가통합조정 위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다환경 체험 프로그램 교육기관 선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바다환경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교육기관으로 인천시 해양환경탐구수련원, 경기성안고교,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등 3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지난 3월 9일 밝혔다.

인천해양청은 모두 11개 팀의 신청서를 심의한 결과 위 3개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이 실현가능성이나 교육효과가 가장 크다고 보고, 선정 기관에 각각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해양탐구수련원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참가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 인천시 강화군 장화리 갯벌에서 바다의 모양과 기능, 지층 탐구, 집게, 밤게 탐구 등의 체험활동을 주관하며 해양환경탐구 캠프도 운영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연구센터 설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내에 "매립기술연구센터"가 설립되는 등 매립지 관리공사의 운영체계가 단순 매립, 폐기물관리

위주에서 친환경적인 경영체제로 전환된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3월 6일 이같은 내용의 공사 조직개편(안)인 3본부 7처 1센터 22팀 214명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확정된 개편(안)은 매립기술연구센터를 새로 설치, 연구기능을 보강함으로써 폐기물의 매립 및 침출수의 처리기술에 있어서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매립기술센터는 연구기획·환경관리·시험분석팀 등 3개팀으로 구성해 박사급 책임연구원 등 고급 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분위기 바뀐다

환경부에서는 직원들이 넥타이를 매고 웃웃을 걸친 채 결재를 받으러 가는 모습이 조만간 옛 풍속도로 자리잡을 것 같다.

한명숙(韓明淑) 환경부 장관은 최근 오후 임시간부회의를 소집해 일하기 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실·국장들에게 비효율적인 관행들을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이 비효율적이면서 알게 모르게 이뤄져 온 관행으로 꼽은 것은 넥타이문화 등 4가지. 넥타이는 외부에 나갈 때만 매고 청사 안에서는 편한 분위기에서 근무를 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장관이 집무실을 드나들 때 직원들이 일어나지 말 것을 당부했는가 하면 간부회의 때는 차를 직접 타 마시는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또 직원들이 일과 후 뒷사람이 퇴근할 때까지 대기하는 문화를 비능률적인 관행의 하나로 꼽으며 “제가 찾을 때 간부들이 자리에 없어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을테니 편안 분위기에서 근무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합리적인 관행 타파와 함께 정책 결정을 위한 토론문화도 환경부에 접목될 분위기다. 곽결호(郭決鎬) 차관도 매주 수요일 열리는 차관주재 간부간담회 때 나열식 업무보고 보다는 토의 주제를 선정해 이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자는 아이디어를 국장들에게 내놨다.

경유승용차 문제가 토의주제로 선정됐다면 실무 책임자인 교통공해과장의 설명을 듣고 실·국장들이 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더 나은 정책방향을 잡아 나가자는 것이다.

환경부의 한 직원은 “심적으로 부담이 가지 않는 근무 분위기나 토론문화가 정착되면 업무 능력도 한층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4회 물절약 포스터·표어 공모전 개최

환경관리공단은 세계 물의 날을 맞아하여 제4회 「물 절약 포스터·표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 공모전은 21세기 환경보전의 주역인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물 절약에 대한 포스터·표어 공모전을 개최함으로써 물 절약에 대한 참여의식과 실천문화를 확산시키는 목적으로 실시됐다.

서울대 환경개선부담금 1위

서울대학교가 올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수에서 서울시내 주요 시설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오염원에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환경개선부담금 상반기분으로 모두 84만3천689건에 847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여성환경운동본부, 환경교재 펴내

유전자 재조합(GMO) 식품의 개념과 위험성 등이 알기 쉽게 풀이된 교육용 환경책자가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여성환경운동본부(회장 박정희 朴正姬)는 일선교사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환경교재”를 펴냈다고 지난 3월 5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GMO식품 개념과 국내외 표시 규정, 식량농업기구(FAO)의 포럼 자료 등이 ‘우리 밥상에는 무엇이 올라 있을까’라는 식으로 보기 쉽게 소개돼 있다.

또 가뭄과 기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적인 농법을 고집하는 에티오피아, 농약을 쓰지 않으면서도 쌀을 증산한 마다가스카르 등 GMO식품을 거부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 국내 대책 등이 그림과 함께 상세히 설명돼 있다.

GMO식품 외에도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실습과 게임 사례 등 청소년 환경교육의 방향도 제시돼 있다.

환경성적표지인증(EDP) 제품, 인터넷으로 공개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이석현)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정용 냉장고, PDP TV, LCD 모니터, CRT용 유리, 두루마리화장지 등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들의 환경성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는 『환경성적표지인증 전용 웹사이트(<http://www.edp.or.kr>)』를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환경성적표지인증(EDP)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들에 대하여 원료채취, 제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을 평가하고 이를 인증기관(환경관리공단)의 정밀검토를

거쳐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200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인 핀란드의 노키아사가 부품공급업체들에게 제품의 환경성정보(LCD/B)를 요구함에 따라 국내 관련 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며, 일본 소니(Sony)사의 경우에도 그린파트너십을 통하여 자사제품 및 관련 부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환경성정보(LCD/B)를 구축하는 등 제품의 환경성적이 국제무역의 주요 변수 중 하나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제품의 환경성이 국제무역의 주요 변수로 대두됨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도 국제규격제정을 위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 규격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경우 비관세 무역장벽화 될 전망이다. 환경성적표지인증 획득은 수출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한킴벌리 환경 캠페인 20년 맞아

화장지, 생리대업체 유한킴벌리가 전개해온 환경캠페인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가 올해로 20년째를 맞는다.

유한킴벌리는 캠페인 실시 20주년을 맞아 그동안 도시와 떨어진 국유림 등에서 매년 열여왔던 '신혼부부 나무심기' 행사를 지난 30일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인근에서 열었다.

유한킴벌리의 환경캠페인은 문국현(文國現)사장이 지난 84년 부장으로 재직시 국유림에 나무를 심는 공익활동을 회사에 제안하면서 시작돼 이후 가지치기와 비료 주기 등 숲 가꾸기 사업, 신혼부부 대상의 나무심기 체험, 숲의 기능을 가르쳐주는 청소년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발전했다.

서울시 친환경 상품만 구매

내년부터 서울시가 구매 또는 임차하거나 각종 공사 등에 쓰는 상품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은 자재만 사용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녹색구매기준"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지난 2월 28일 밝혔다.

이는 현재 국가계약법이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는 원칙인 최저가낙찰제와 한국산업규격(KS)을 중심으로 한 자재품질 등만을 규정, 공공기관이 구매 등 계약을 하는데 있어 상품의 친환경성까지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기준에 따르면 업체는 상품을 납품할 때 다른 상품에 비해

자원과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나 오존(O₃)과 같은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유해영향이 적다는 등 상품의 친환경성을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또 시 공무원은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상품별 환경성 기준을 설정, 이를 계약조건에 반영해야 한다.

2002무등환경인상에 김완기씨 등 4명

2002년 무등환경인상에 김완기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상임이사 등 4명이 선정됐다.

지난 2월 27일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에 따르면 2002무등환경인상 수상자로 김 상임이사(행정의회부문), 안관옥 한겨레신문 기자(언론방송부문), 이성기 조선대 교수(학술연구부문), 하상용(주빅마트 대표(후원부문) 등 4명이 선정됐다.

김 상임이사는 2001년 말까지 광주시 행정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무등산공유화재단 설립 등 무등산보호운동에 기여한 점, 안기자는 무등산보호의 과제를 시민들에게 폭넓게 인식 시킨 점, 이교수는 무등산온천개발의 문제점을 학술적으로 검증한 점, 하대표는 무등산공유화기금 모금운동에 적극 참여한 공로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 5개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우수재활용(GR) 품질인증업체 등 환경 관련 우수기업의 판로 지원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정부지원시책 설명 및 토론회를 위한 행사를 지난 2월 26일 기술표준원 중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 부처와 한국산업기술재단 등 3개 정부 출연 기술지원기관이 참석하여 우수환경산업체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토론하였고, 행사에는 80여개 GR품질인증업체, NT·EM 품질인증 등을 획득한 20여개 우수환경업체 등 100여개 업체가 참석했다.

기술표준원은 KS제품보다 우수한 재활용제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제품의 소비가 촉진되지 않는 것은 재활용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도 문제지만, 재활용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어서 지원 관련 정보에 어둡고 새로운 기업경영 및 혁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

따라서, 기술표준원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재활용산업체가

한명숙 환경부장관 일문일답

한명숙 신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월 27일 오후 환경부 기자회견에 들어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대면해서라도 환경이 우선시 되도록 정책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개발 단계에서부터 환경부가 참여해 환경보전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환경단체를 계획단계부터 참여시켜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임 소감은.

- 여성부에서 일하다 쉬지 않고 환경부로 옮기게 됐다. 참여정부에서 첫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돼 어깨가 무겁다.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NGO(비정부기구)에 있을 때 환경운동을 열심히 했고 제16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도 지내 환경부가 생소하지 않고 친근감이 있다. 열심히 할 생각이다.

환경부 장관 첫 통보는 언제 받았나.

- 여성부에 유임될 줄 알았는데 오늘 통보를 받았다.

제안받았을 때 느낌은

- 평소에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았다. NGO와 한 노위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여성부 장관 재직 경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현안이 많은 데 경제부처와의 협상이 힘겹지 않겠나.

- 환경전문가는 아니지만 환경과 개발을 조화롭고 균형있게 발전하는 녹색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을 직대해서라도 환경이 우선시 되도록 정책을 이끌어 나가겠으며 정책개발 단계에서부터 환경부가 참여해 환경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현안은 모르지만 열심히 일하겠다.

환경단체와의 협력 관계는.

- 앞으로 개발사업이 있을 경우 계획단계부터 환경단체를 참여시켜 협력해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여성 장관의 장점이라면.

- 논리적인 설득력과 소신을 들 수 있다.

급변하는 산업 현실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산업 종합지원시책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성적표지제도 운영계획 설명회

환경마크협회와 한국인정원, 에코프론티어는 환경부 후원으로 지난 2월 21일 서울 은평구 환경기술진흥원 회의실에서 “환경성적표지제도 운영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환경마크협회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국제표준화와 관련한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환경성적표지제도 운영현황과 국제표준화기구(SO)의 표준화동향 설명이 이뤄졌다.

환경성적표지제도는 제품의 자원사용량 등 환경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제도.

특히 설명회에서는 환경성적표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작년 10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라이프사이클 목록분석(LCI) 데

이터베이스” 개발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대구·인천환경기술개발센터 전국서 꼴찌

지역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을 중심으로 운영중인 총 16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가운데 대구와 인천지역기술개발센터가 최하위로 평가됐다.

환경부 지난 2월 11일부터 3일 동안 전국 16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대상으로 작년도 연구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구와 인천지역기술개발센터가 최저 점수를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에는 전남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가 뽑혔고 최우수 센터에는 경기·경남지역센터, 우수센터는 울산·강원·충남센터가 각각 선정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총점이 가장 낮은 최하위 2곳인 대구와 인천지역 센터를 경고조치하고 센터 내실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